

대우조선해양(주) 시찰 및 임직원과의 만남 행사

대우 조선의 괄목할 성장을 치하, 노사 상호간의 신뢰와 타협이 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

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디 가면 박수를 받습니다. 오늘 같은 박수는 처음입니다. 귀 떨어질 뻔했습니다. 여러분들 와서 선물 줄 것도 없고 훈시할 것도 없고, 그런데도 왔습니다. 말을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와 보고 싶은 곳입니다. 그런데 인연이 있어서 와보고는 싶은데 뭐가 잘 안되고 시끄럽고 서로 싸우면, 오기가 어렵습니다. 오고 싶지도 않고 부득이 안 올 수 없으면 몰라도 안 오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 잘 한다니까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 국가발전 역군이라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느끼는 것 아닙니까. 여러분 잘하는 모습보고 싶었습니다.

한국이 지금 어렵고 바쁩니다. 갈 길 바쁩니다.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. 안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. ‘안 된다, 문제가 있다는 것’ 보다 잘 하는 사람 왜 잘하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리 해 봅시다. 공무원 많이 안 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 합니다. 잘하는 기업은 왜 잘하는가를 보고 우리도 배웁시다. 잘 한다니까 보고 싶었습니다.

참고 자료 적어주는데 대우조선이 경영 호전되고 노사협력 어땠고, 세계 조선산업 한국조선산업 적어 봤습니다. 인사말 하라고 이번이 3번째 방문을 적어 봤습니다. 3번째가 아닙니다.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, 딱 기억이 나는 것은 87년 왔었고 89년에 대우조선이 산업은행 지원 받느냐, 혹은 못 받느냐에 대해 노동자들은 파업하려 하던 때에 왔습니다.

별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. 합의하긴 했는데 뒤집어지고 해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 사람 재판 받는데 변론하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뒤에 다른 일 있어서 한 두 번 왔다가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. 98년도에 큰 일 났지 않습니까. 노동자와 대화해서 고비를 넘기자 일을 맡았습니다. 각 지역 노동자 만나는데 염치가 없었습니다. 노동자가 부도낸 것도 아닌데 노동자 피를 흘리자는 말을 하려니 염치가 없어서 그래도 그리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서 왔습니다. 그 때 대우조선 조합에 왔는데 분위기 으스스합니다. 그래도 어지간히 대화가 돼서 비서에게 가봤습니다. 약발 안 받는다 했는데 그래도 잘 왔지 않습니까. 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. 그 때 마음으로 한 쪽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.

그 뒤 아주 우수한 사업체가 되어서 노사협력도 우수하게 잘한다니까 감사합니다. 말씀 듣고 제가 도움이 되고 그나마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.